

# 이슬람을 향한 기독교 선교의 역사적 흐름(1900-2012)과 한국적 대안

정마태\*

## I. 서론

### II. 1906년 이후 2012년까지 이슬람 선교의 역사적 흐름

1. 지난 100여 년의 이슬람 선교 토양의 변화
2. 사무엘 즈웬머와 초기 미국 기독교의 이슬람 선교
3. 유럽 기독교의 이슬람 선교와 WCC의 무슬림들과의 대화  
:영국을 중심으로
4. 1973년 로잔 대회 이후 복음주의 이슬람 선교
5. 무슬림 미전도 종족을 향한 교회 개척 운동
6. 기독교 세계관 변화 운동
7. 대결과 공존: 이슬라모포비아와 공통된 말씀(A Common Word)
8. 한국 교회가 배울 교훈들

### III. 이슬람 선교를 위한 한국교회의 대안

1. 이슬람 선교에 대한 건강한 신학적 틀
2. 무슬림권내에서 '하나님의 공동체'(교회)의 의미
3. 제자 양육을 통한 현지 교회 형성
4.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한 상황화
5. 삼자 파트너십 형성과제
6. 한국 정부의 역할강화
7. 차 세대 기독교인을 위한 권고

## IV. 결론

---

\* 합동신학교 선교학 교수, 이슬람파트너십 대표

## ABSTRACT

# Historical Trends of Christian Mission Toward Islam (1900-2012) and Alternative ways for the Korean Church in the future

Matthew Chung

On April 4-9, 1906, the Cairo Conference was held in Egypt as the first Mission Conference aimed at reaching the Muslim world, led by Samuel Zwemer. Since then about 100 years have passed. We want to evaluate the historical trends of Christian Missions toward Islam over those past 100 years and suggest alternative ways forward for the Korean church.

Missions environments in ministry to Muslims from 1900 to 2012 have been changing drastically. One example is two different approaches between the WCC through dialogue and the WEA through evangelism with a 7.5 times increase in the Muslim population between 1900 and 2010.

The major trends of Christian Missions toward Islam from 1900 to 2012 are as follows :

- 1) Samuel Zwemer and early American Missions toward Islam with the SVM (Student Volunteer Movement)
- 2) European (especially British) Missions toward Islam and the WCC's Dialogue with Muslims
- 3) Evangelical Missions toward Islam after Lausanne since 1973 (along with Micah Network)
- 4) Church Planting Movement (CPM) toward Unreached Muslim People Groups
- 5) Movement of Christian Worldview Transformation

6) Confrontation or Co-Existence: Islamophobia and 'A Common Word'

The Korean church should learn valuable lessons from the above past six trends in Mission history to find the best alternatives below in the future. This is especially so since Korea started its mission to Islam in 1961 by sending three women missionaries to Pakistan from Ewha Woman's University, having gotten 97,313 people from OIC countries as of December 2010, and has sent 4,494 Korean missionaries to Muslim countries as of 2011.

- 1) Let's provide a healthy theological framework for Missions toward Islam in addition to the already existing Western-initiated theology.
- 2) Let's look again at what the church (or the community of God) means within the Muslim community.
- 3) Let an appropriate local church according to its culture be formed through healthy discipleship.
- 4) Let's emphasize an application process of contextualization prompted by the Holy Spirit and prayer.
- 5) Let's do our best to work together in tri-partnership between Korea, the National (local) Church, and the International body of Christ.
- 6) Let's strengthen the role of the Korean government.
- 7) Let's urgently prepare the next Christian generation in Korea.

● **Key Words** : Mission toward Islam, past 100 years,  
Historical Evaluation, Korean church's Alternatives,  
New Missions and Direction

## I. 서론

1906년 4월 4-9일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사무엘 즈웹머 (1882-1912)가 주도하여 최초로 이슬람 선교 대회가 열렸다.<sup>1</sup> 이는 학생 자원 운동 (Students Volunteer Movement-SVM)에 영감을 받아 헌신한 사람들 중 그 당시 세계 복음화가 가장 안 되고, 가장 어려운 지역인 이슬람권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는 열정으로<sup>2</sup> 카이로에서 열리게 되었다. 그 이후 2012년까지 기독교의 이슬람을 향한 선교역사는 약 100여 년의 발자취를 남기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권을 향한 한국 교회의 기독교 선교는 1961년부터 시작되었다.

지난 1400년간 이슬람과 기독교가 긴장과 대결의 역사라면, 그것은 이슬람과 서구와의 관계의 역사였다. 그러나 다행히도 한국은 이슬람 나라와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면에서 이슬람 세계와 좋은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므로 현재 시기는 한국인들에게는 세계의 무슬림들과 관계를 맺어 가는 일과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결정적이고 역사적인 시기이다.

9/11이후 전 세계가 테러와 이슬람포비아에 휘말리고, 서방이 무슬림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새로운 선교 환경이 만들어 지는 동안 한국 선교사들은 점차적으로 이슬람권으로 들어가고, 무슬림들은 한국 땅으로 점점 더 들어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서구가 무슬림들과의 관계에서 저지른 실수를 한국교회가 반복하지 않고, 그들과 새로운 관계, 그리고 더 나은 관계로 발전시켜야 하는 현실적 요청에서 필자는 이 글에서 1906년 카이로 대회 이후 현재까지 약 100년간의 기독교의 이슬람을 향한 선교의 역사적 흐름을 정리해 보고 앞으로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이슬람 선교의 대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

1. J. Dudley Woodberry, *From Seed To Fruit*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2008). v (Introduction).

2. Lyle L. Vander Werff, *Christian Mission to Muslims, (Anglican and Reformed Approaches in India and the Near East, 1800-1938)*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1977), 225-226.

## II. 1906년 이후 2012년까지 이슬람 선교의 역사적 흐름

### 1. 지난 100여 년의 이슬람 선교 토양의 변화

1906년 첫 무슬림 선교 대회가 29개 선교단체에서 임명된 62명의 대표자들과 60명의 공식방문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카이로에서 열렸다. 4년 뒤 1910년에 에딘버러 세계 선교 대회에서도 ‘단 하나의 유일한 질문은 기독교와 이슬람 중 어떤 종교가 압도할 것인가’<sup>3</sup>라고 질문하면서 이슬람 선교의 필요성과 도전을 절감하게 되었다. 결국 같은 해 1910년에 *The Muslim World* 잡지가 만들어 지고, 즈웬머가 편집장으로 36년간 수고하면서 무슬림 세계가 복음화 되는 일을 위해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일생을 바쳤다.<sup>4</sup> 그 후 다음과 같은 중요한 복음주의 이슬람 선교 대회들이 열렸다.

- 1911년 1월 23-28일 인도 렉 크나우 (Lucknow) 컨퍼런스<sup>5</sup>
- 휴식기: 1,2차 세계 전쟁으로 찌들어 있는 동안 이슬람 선교 운동은 지연됨.<sup>6</sup>
- 1978년 ‘무슬림 복음화 북미 대회’-‘복음과 이슬람’을 돈 맥커리가 편집<sup>7</sup>
- 1980년 6월 로잔의 한 분과로서 ‘무슬림 전도에 관한 소회’<sup>8</sup>
- 1987년 7월 네덜란드의 Zaist대회<sup>8</sup>
- 2007년 봄 파타야의 ‘이슬람 선교 컨설팅’-약 500명의 사역자들과

---

3. Brian Stanley, *The World Missionary Conference, Edinburgh 1910*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2009), 15.

4. Lyle L. Vander Werff, *Christian Mission to Muslims (Anglican and Reformed Approaches in India and the Near East, 1800-1938)*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1977), 225.

5. J. Dudley Woodberry (2008), vi

6. Ibid., 7, 84.

7. Ibid., 85. 그는 18년간 파키스탄에서 사역했고, 미국에서 1988년에 ‘무슬림 사역’ (Ministries To Muslims)을 창립하여 현재까지 총재로 사역중이다.

8. Sam Schlorff, *Missiologial Models in Ministry to Muslims* (Upper Darby: Middle East Resources, 2006), 25.

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무슬림 사역의 글로벌 흐름과 실제 사역을 살펴봄.<sup>9</sup>

그러나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교회 협의회 (WCC)에서는 무슬림들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1962년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수많은 회의와 대화들이 있었다. 즉, 1962년 이후 무슬림들과의 대화를 주도하는 WCC 중심의 에큐메니컬 진영과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주의 (World Evangelical Alliance: WEA) 진영으로 점점 더 양극화되었다.<sup>10</sup> 그러면 지난 100년간 세계 인구와 무슬림 인구 증가 추세와 상황은 어떤가? 데이빗 바렛 (David B. Barrett)과 돈 맥커리의 논문집 (1978년에 편집)에 나타난 인구증가를 보면, <표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1: 1900-2050년 세계 인구와 무슬림 인구 증가비교>

| 년도     | 1900년 | 1978년            | 2010년             | 2050년             |
|--------|-------|------------------|-------------------|-------------------|
| 세계 인구  | 16억   | 40억              | 62억               | 90억               |
| 무슬림 인구 | 2억    | 7억 <sup>11</sup> | 15억 <sup>12</sup> | 25억 <sup>13</sup> |

<출처: World Christian Trends, AD 30-AD 2200, p. 4><sup>14</sup>

무슬림의 인구 성장은 매우 의미가 크다. 1900년에서 2050년에 걸쳐서 세계 인구는 거의 6배의 성장을 예견한다. 그러나 무슬림의 숫자는 12배 이상 증가하여, 2억에서 25억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큰 흐름에서 한국 교회의 위상과 책임이

9. J. Dudley Woodberry (2008), viii 그 자리에 열매 맺는 실제 사역을 위한 그룹에는 37개 나라들과 56개 선교 단체들과 기관들에서 온 280명 사역자들이 참여함. 이들은 738개의 교회를 개척한 팀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고, 5,800명의 현지 사역자들로부터 수집한 94개의 무슬림 사역 유형들을 평가하였다. (이 컨설팅 내용들 '씨앗에서 열매로' (From Seed To Fruit)라는 책으로 Dudley Woodberry가 편집-이 책은 곧 한글판으로 번역되어 출판될 예정이다.)

10. Sam Schlörff (2006), 19.

11. Edited, Don M. McCurry, *The Gospel and Islam: A 1978 Compendium* (California: MARC, 1979), 13, 598.

12. J. Dudley Woodberry (2008), 85.

13. Ibid., 11.

14. David B. Barrett, Todd M. Johnson, *World Christian Trends, AD 30-AD 2200*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2001), 4.

어떻게 변했는가? 1910년 에딘버러 선교 대회에 참여한 1,215명의 대표자들 중 비서구 참여자들은 오직 19명뿐이었다.<sup>15</sup> 그 중에 한국대표로 윤치호가 읍저버 자격으로 참가했다. 1893년 당시 한국 그리스도인은 겨우 177명뿐이었다.<sup>16</sup> 그 이후, 100년이 지난 오늘날의 판도는 엄청나게 다르다. 오늘날 서부 아프리카와 동아시아 사이의 10/40창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 선교사의 숫자가 영국선교사의 수를 이미 앞서고 있는 실정이다.<sup>17</sup> 2011년 12월 현재 무슬림 나라에서 사역중인 한국 선교사들은 약 4,494명이다.<sup>18</sup>

## 2. 사무엘 즈웬머와 초기 미국 기독교의 이슬람 선교

현대 이슬람 선교를 열어 준 선교사가 사무엘 즈웬머임을 부인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는 모팻과 함께 1886년에 시작하여 1920년에 절정을 이룬 학생 자원운동 (SVM)을 주도한 지도자였다. 이 운동으로 약 20,000여명의 미주 젊은 남녀 학생들이 세계 선교에 헌신하였다. 그러나 사무엘 즈웬머의 이슬람 사역에서 아래 두 가지 이슈를 보게 된다.

첫째, 그의 미국적 승리주의에 입각한 일방적 이슬람 선교를 보게 된다. 그의 위대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샘 설로르프는 무슬림 선교의 6가지 상황화 모델을 설명하는 중 그의 사역을 19세기 제국주의 모델로 간주했다. 그의 저널이었던 *The Muslim World*에 수록된 논문들이나, 그의 저서에서 나타나는 그의 글들을 볼 때, ‘이슬람의 옛 건물을 무너뜨리고 이슬람의 옛터 위에서 새로운 기독교 사상 체계를 세우는 선교 목적’으로 이슬람을 열등하고 죽여가는 종교로 간주하여 접근하였다. 이 모델은 그리

---

15. Brian Stanley, *The World Missionary Conference, Edinburgh 1910*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2009), 91, 97. 불행하게도 아프리카 흑인들은 한 명도 초대받지 못했다.

16. 앤드류 웰즈외, 『기독교의 미래』 (파주: 청림 출판, 2006), 267.

17. J. Dudley Woodberry (2008), 56.

18. Steve Sang-Cheol Moon, "Missions from Korea 2012: Slowdown and Maturation" *IBMR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Vol.36, No.2, April 2012, 85. (전체 한국 선교사 19,373명 중 23.2%) 물론 이중의 많은 한국 선교사들이 기독교 사역을 하는 것으로 짐작한다. 이중 순수하게 무슬림 사역을 하는 한국 선교사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스도와 복음의 유일성을 유지하는데 장점이 있으나, 이슬람과 기독교간에 단절을 가져오고, 무슬림 개종자들은 ‘거부 구조’ (개종자들이 핍박을 받으며 신앙을 바꾸거나 도주하는 구조)를 채택하므로 말미암아 북아프리카에서는 안정적이지 못한 교회들이 되거나 아예 전혀 아무 교회도 남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sup>19</sup>

둘째, 다원화되었던 이슬람의 변화에 적절하게 상황화하는 일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는 점차적으로 ‘그 당시 팽배했던 서구적 기독교 왕국 확장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sup>20</sup> 성경, 찬송가, 고백서들, 주석들에 자국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 외에 상황화는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이 이슬람에 접근한 것에는 문제가 있었다.<sup>21</sup> 사실, 사무엘 즈웨머는 40년간 사역 후 12명 정도의 개종자를 얻었던 것<sup>22</sup>을 보면 그 당시의 척박한 현실과 그가 직면한 도전을 절감하게 된다. 1920년 이후 미국에서는 그토록 강력했던 선교 열정이 갑자기 쇠퇴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선교 쇠퇴로 인해 이슬람 선교도 함께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sup>23</sup>

### 3. 유럽 기독교의 이슬람 선교와 WCC의 무슬림들과의 대화 : 영국을 중심으로

첫째, 20세기 무슬림들과의 대화 시도와 여러 대화들이 있었다. 1951년부터 이

19. Sam Schlorff (2006), 10-11.

20. Ibid., 234.

21. Sam Schlorff (2006), 10-11.

22. 이수환, 『상황화 선교 신학』 (파주: 한국 학술 정보(주), 2011), 151.

23. 존 맥아더 (John MacArthur), 조제광 옮김, 『복음 전도』,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2), 377-378.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는 쇠퇴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지적하였다.

첫째, 선교사로 나선 학생들이 선교열정은 매우 뜨거웠으나 대부분 신학적 기반이 부실했던 점. (학생들의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과 세계 종교에 대한 관심에 큰 영향을 받은 관계로 타협적인 초교파적 일치화 운동의 성격을 띠었음). 둘째, 선교 현장에 파송된 학생들을 배출한 터전이 지역교회와는 무관했던 점. 그 결과로 파송된 선교사들은 지역 교회의 인준이나 후원을 전혀 받지 못했던 점. 셋째, 학생 자원 운동이 교회의 선교를 이해하지 못한 점, 즉 신학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이 없었던 탓에 “사회 복음”이 학생 자원 운동을 지배하기에 이르렀고, 학생 자원 운동이 절정에 달했던 1920년에 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구원조차 의심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인종관계, 빈곤 퇴치, 국제 평화와 같은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음.” 그리하여 학생 자원 운동은 사회 사역이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을 대체하는 역사로 전락하게 되었다.

슬람 선교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1910년에 사무엘 즈웬머로부터 시작한 *The Muslim World* 지는 1951-1960년에 Willem Bijlefeld가 세운 The New Duncan Black Macdonald Center for the study of Islam and Christian-Muslim Relations와 함께 케네스 크랙(Kenneth Cragg)이 2대 편집자가 되면서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즉 더 많은 대화식 접근(More dialogical approach)으로의 전환이었다.<sup>24</sup> 이러한 전환은 무슬림들과 이슬람을 더 이해하는 것은 좋았으나 선교의 열정은 식어 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학술지 *The Muslim World*는 1960년에 문을 닫게 되었다.

케네스 크랙은 개신교 진영에서 이슬람과의 대화를 위한 신학적 토대를 놓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많은 무슬림-크리스천 관계 서적들을 저술하였다. 그의 공헌은 WCC가 주도했던 단순한 종교간 대화가 아니라 꾸란과 성경을 넘나들며 두 종교를 더 깊이 비교 연구하였다. 그는 초기에 일방적인(Unilateral)입장에서 다각적인(Multilateral)방향으로 나갔다.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양쪽 종교의 완성을 대표한다. 그의 후기 저작들에서 ‘종교간’ (Inter-Religion)이라 부르는 새로운 완성의 차원에 대한 여러 탐구가 그의 주요한 관심사였다.<sup>25</sup> 이슬람과의 대화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소산이다. 시작 초기 발기인들은 세계 교회 협의회 (World Council of Churches)였고 바티칸이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대화 프로그램은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Second Vatican Council, 1962-1965)에서 ‘비기독교 종교에 대한 선언’(Declaration on Non-Christian Religions)을 만든 이후 여러 기구들이 창설되었다.<sup>26</sup>

둘째, 이슬람 선교에 있어서 종교 자유, 개종, 인권과 선교사들의 윤리 문제를 다루

---

24. Hugh Goddard. *A History of Christian-Muslim Relations*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1), 185.

25. Sam Schlorff (2006), 20-21.

26. 유럽 교회 회의 (Conference of European Churches-CEC)와 ‘유럽 비숍들의 대표자 협의회’ (Council of European Bishops’ Conferences-CCEE)의 CRME (Committee for Relations with Muslims in Europe, 유럽무슬림 관계 위원회) 최종 보고서 (Final Report). 2009년 1월 19-21일 Munich-Pullach회의의 최종 보고서, Document 4.2 ,1-40요약.

게 되었다. 2009년 스웨덴 오슬로에서 ‘UN 인권선언’ 18조에 근거하여<sup>27</sup> ‘종교 또는 믿음의 자유에 대한 오슬로 연합 문건’ (coalition)을 발표하여 종교간의 자유, 개종할 권리와 개종의 범위, 인권문제, 선교사들의 윤리와 선교사들의 활동 제한 등에 대하여 정리하게 되었다.<sup>28</sup>

#### 4. 1973년 이후 로잔 대회 복음주의 이슬람 선교

1973년 빌리 그래함을 중심으로 복음주의 진영에서 시작된 로잔 운동은 이슬람 선교에도 영향을 주었다. 2010년에 남아공에서 3차대회로 모이면서 ‘온전한 복음’ (The Whole Gospel), ‘총체적인 선교’ (The Wholistic Mission)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러한 총체적 선교의 방향으로 인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지역 개발 사역 (CHE: Community Health Education 또는 Community Health Evangelism), 비즈니스 선교 (Business As Mission), 의료 선교, 교육 선교, 문화 선교 등 평신도 전문인 선교가 그 어느 때 보다 활성화 되고 있다. 로잔과 함께 또는 로잔 운동을 능가하여 총체적 선교를 하는 ‘미가 네트워크’ (Micah network) 이 1999년 쿠알라룸푸르에서 구제와 개발사역을 하는 단체의 리더들이 모여 출발하게 되었다. 라틴 아메리카의 지도자 르네 빠디아 (Rene Padilla)가 최초 회장이 되었고 미가 6:8을 중심으로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며 이 운동은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무슬림 나라들이 산유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난하므로 이러한 총체적인 신학과 접근은 매우 중요하다.<sup>29</sup>

---

27. ‘UN 인권선언’이란 1948년 6월 국제연합(UN) 인권위원회에 의해 완성된 후,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쳐 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선언이다.

28. ‘The right to try to convince the other: Missionary activities and human rights’에 대하여는 <http://www.oslocoalition.org/mhr.php> and [http://www.oslocoalition.org/mhr\\_background\\_eng.php](http://www.oslocoalition.org/mhr_background_eng.php)를 참고하라.

29. ‘미가 네트워크’를 알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보라.

<http://www.micahnetwork.org/news/meeting-goals-does-it-matter> “사람이 주께서 선택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8)

## 5. 무슬림 미전도 종족을 향한 교회 개척 운동

총체적 사역을 위한 움직임이 있는 동안 미국의 복음주의를 중심으로 한 ‘2000년 세계 복음화 운동’ (2000 and Beyond Movement)과 ‘미전도 종족 입양 운동’ 그리고 ‘10/40 창(Window) 복음화 운동’으로 인해 많은 현지 교회들이 개척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복음이 전해 지지 않은 나라들이 무슬림권 지역들이므로 무슬림권에 더 집중하여 선교하려고 노력 중이다. 한국 교회는 미전도 종족 전도운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나라 중 하나이다.

총체적 선교가 복음주의 진영에 등장하면서 복음 전파가 먼저냐, 사회 참여가 먼저냐 하는 우선순위 문제가 늘 논의되어 왔었다. 한국 교회는 전반적으로 사무엘 모펏의 신학적 입장을 따라 온 것이 사실이다.<sup>30</sup> 즉, 복음 전도와 사회활동에 모두 참여하도록 부름 받았음을 인정하면서도 우선적 동반자는 복음전도라는 입장이다. 이런 신학적 입장에서 비전59 (무슬림권내 교회 개척을 위한 세계적인 네트워크)나, 교회 개척 운동 (CPM-Church Planting Movement)을 통하여 무슬림 지역에도 매우 어렵지만, 서서히 열매를 맺고 있는 중이다. 한국에도 2012년에 데이비드 왓슨(David Watson)이 와서 CPM세미나를 하여 큰 반응이 있었다. 2007년 봄, 파타야에서 개최되었던 컨설팅에서 오늘날 무슬림 세계 안에 십 만명 이상의 무슬림 미 접촉 종족이 247개가 된다고 확인된 바 있고<sup>31</sup> 우선적으로 이 종족들에 사역자들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또, 최근 들어 무슬림 가운데 교회 개척과 관련하여 상황화 문제가 제기되어 많은 논란이 일어났다. 소위 인사이더 운동 또는 John Travis의 C1-C6 상황화 패러다임이 그것이다.

## 6. 기독교 세계관 변화 운동

교회 개척 운동의 치명적인 결점은 기독교로 개종하기는 하나, 마음의 회심이 안 되

30. 랄프 윈터, 스티븐 호돈, 『미션 퍼스펙티브』 (서울: 예수 전도단, 2010), 196-197.; Samuel Hugh Moffat ‘복음 전도’ (우선적 동반자-The Leading Partner)

31. J. Dudley Woodberry (2008), 87.

는 문제점, 즉 모자만 바꿔 쓰기식 개종으로 인한 교회 개척이 고질적인 문제였다. 폴 히버트(Paul Hiebert)는 이런 원인을 분석하면서, 21세기에는 ‘세계관의 변화’가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sup>32</sup> 즉, 크리스천과 같은 옷을 입고 교육을 받아서 그들과 비슷한 행동과 형식을 취한다고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신학적으로 알고 외워서 입으로만 앵무새처럼 고백한다고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세계관이 성경적/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바뀌어야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이다. 찰스 크래프트(Charles Kraft)와 폴 히버트의<sup>33</sup> 영향으로 세계관 변화에 대한 강조가 일어나고 있다. 즉, 그리스도께 회심하는 일에는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개종이 아닌) 반드시 세 가지 차원의 일이 일어나야 하는데, 행위와 믿음과 그리고 저변에 놓여있는 세계관(Worldview)이 모두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일방적 선교가 아니라 무슬림의 세계관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이끌어 냈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더 깊은 제자 양육을 하도록 도전하였다.

## 7. 대결과 공존: 이슬라모포비아와 공통된 말씀 (A Common Word)<sup>34</sup>

첫째, 21세기에 들어서 이슬라모포비아가 발생하였다. 2001년에 9/11, 2004년 3/11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서 연쇄 폭발 테러 사건, 2005년 7/7에 런던 지하철에서 알카이다 등 과격 무슬림들에 의해 폭탄이 터지면서 세계는 이슬라모포비아에 휩싸이게 되었다. 영국 정부가 1997년 10월 22일 런던의 하원에서 Runnymede 재단 조사 위원회를 조직하여 ‘우리 모두를 향한 도전: Islamophobia’<sup>35</sup> 라는 제목으로 영국내 이슬라모포비아 이슈를 다루었다. 폴 히버트는 포스트모던 세계의 글로벌 현상에 종교가 문화적 정체성의 기초로 부상하는 점을 중요한 점으로 지적하면서, 갈수

32. Ibid., 11.

33. Paul G. Hiebert, *Transforming worldview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8), 10-11.

34. For the full contents of a Common Word, please see <http://www.acommonword.com/index.php?lang=en&page=option1> accessed on 20 December 2009, and Sam Solomon and Al-Maqdisi, *The Truth about ‘A Common Word’* 2008, 11-12.

35. Edited by Conway, Gordon, “Islamophobia; A challenge for Us All”, *Report of the Runnymede Trust Commission on British Muslims and Islamophobia* (University of Sussex, 1997), 5.

록 많은 무슬림들이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서는 언제나 그들이 팔시 받는 존재로 본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서양식 대안을 거부하며 일차적 정체성을 이슬람교에서 찾는 흐름, 즉 신정주의 국가를 세우려는 분위기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sup>36</sup>

둘째, 기독교와 이슬람간에 대결과 공존의 두 기로에 서 있다. 21세기에 들어서서 이슬람 내에도 여러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즉, 1. 이슬람 근본주의의 부상, 2. 무슬림들 내부의 글로벌 세속화, 3. 무슬림들의 글로벌 이주 현상, 4. 무슬림들의 시민 봉기 (예, 아랍의 봄) 5. 무슬림들의 정체성 위기와 기독교로의 회심-이슬람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과 살인과 타락과 이슬람 정권의 정치적 부패에 대해 깊은 염증을 느낀 젊은이들이 이슬람을 떠나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건 등이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무슬림 나라들 내의 크리스천들은 위기에 직면하고, 핍박과 고난과 순교가 증가하고 있다. 즉, 양 종교 간의 대결과 공존 상황이 21세기의 다원주의와 다양성 현상과 맞물려 드러나고 있다. 다니엘 브라운(Daniel Brown)은 그의 책 『이슬람의 새로운 소개』 (A New Introduction to Islam)의 맨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코멘트 하였다.

“현대 이슬람은 분명히 서구에 사는 무슬림들과 다원주의의 도전에 의해 매우 심오한 영향을 받고 있다. 현대 무슬림들은 ‘다원주의 세계 내의 이슬람’과 ‘이슬람 내의 다원주의’ 둘 다를 위한 대안적인 비전들을 택해야 하는 일에 직면해 있다. 한 방향만을 생각하는 것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무슬림 공동체는 세계에 도전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러한 고투 가운데서 현대 무슬림 공동체의 가장 큰 도전은 다원주의라 보여진다”<sup>37</sup>

양방 간에 공존하려는 노력도 고무적이다. 이러한 이슬라모포비아 현상이 진행되는 동안 2006년 9월 12일,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독일의 Regensburg 대학교에서 한 연설에서 이슬람에 대해 코멘트를 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 무슬림들이 세계적으로 널

36. Ibid., 468.; 486.

37. Daniel W. Brown, *A New Introduction to Islam*, Second Edition (West Sussex: Wiley-Blackwell, 2009).298.

리 시위하게 되었다. 한달 뒤인 2006년 10월 12일, 교황의 그러한 이슬람에 대한 입장을 비판하는 ‘교황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38명의 최고 이슬람 학자들과 성직자들이 출판하게 된다. 일년 후, 2007년 10월 11일, 더 큰 무리인 138명의 이슬람 학자들, 성직자들과 지성인들이 양 종교가 공통으로 존중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핵심 가치를 담은 ‘우리과 당신 사이의 공통된 말씀’ (A Common Word between Us and You)<sup>38</sup> 공개서한을 교황과 기독교 교단 지도자들에게 보냈다. 이 ‘공통된 말씀’ 문서는 개인들과 여러 기관들로부터 많은 반응을 받았다. 그 중 예일 대학교의 네 명의 학자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함께 사랑함’ (이것이 ‘예일선언문’이 되었다)이라는 문건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공개 응답하였다. 그리고 세계 기독교 지도자 300명이 ‘공통된 말씀’에 사인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두 종교 간의 신학적인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라기보다는<sup>39</sup> 이 지구상 인류의 반 이상이 그리스도인들과 무슬림들인 점을 감안할 때, 인류가 처한 위기를 우선 극복하고 평화 공존을 위해 두 종교 지도자들이 사회적, 외교적, 정치적으로 노력한 결과였다.

무슬림들을 대하는 여러 시도들은 복음주의 기독교 지도자들 내에서 세 가지 방식으로 나타났다. 즉, 논쟁적인 접근<sup>40</sup>, 자유적인 접근, 복음적인 접근 방식이

38. Edited by Miroslav Volf, *Ghazi bin Muhammad, and Melissa Yarrington* (Forward by Tony Blair), *A Common Word, Muslims and Christians on Loving God and Neighbor* (Grand Rapids/Cambridge: William B. Eerdmans, 2010), 1-8. 한국에서는 조용기 목사만 사인하였다.

39. 신학적 목적으로 ‘A Common Word’가 만들어 진 것은 아니나, 한 가지 신학적 비판을 보려면 Sam Solomon and Al-Maqdisi, *The Truth about A Common Word*, 2008을 참조하라.

40. Chesworth, John Anthony, “The use of Scripture in Swahili Tracks by Muslims and Christians in East Africa”, *The University of Birmingham for the degree of Ph.D.*, Department of Theology and Religion School of Historical Studies, (The University of Birmingham October 2007), 19-20. I use John’s definition of Eirenic and polemic as below

– Eirenic(al): Promoting peace (can also be spelt as Irenic). Used in Christian-Muslim relations to refer to an attitude and approach that promotes peace between different groups. Used here to refer to writing that is conciliatory and which attempts to improve relationships or to at least maintain the status quo.

– Polemic(s): Controversial discussion and debate, especially in theology (also polemical). In Christian-Muslim relations, it refers to an approach which is disputatious and which deliberately sets out to be provocative. Used here to refer to writing that is insulting and offensive to the ‘other faith’.

다.<sup>41</sup> 리차드 맥 컬럼(Richard McCallum)은 이 세가지를 분리 (isolation), 순응, (accommodation), 참여하는 정통(engaged orthodoxy)이라고 요약하였다.

## 8. 한국 교회가 배울 교훈들

우리는 앞에 진술한 6가지 맥락의 역사적 흐름을 보고, 온고지신함으로 배울 것은 배우고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려서 한국적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첫째, 사무엘 즈웬머적인 기독교 승리주의를 버려야 한다. 즉, 이슬람을 단순히 적으로 보고 무찌를 대상으로 보는 관점, 이슬람 문화나 그 자체를 멸시하는 기독교 제국주의 시각과 자세, 이슬람의 다양함과 다원화되는 것을 모른 채 일반화하는 경향은 버려야 한다.

둘째,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무슬림들과의 대화로 발전해야 한다. 유럽 국가와 교회들은 지난 1400년간 이슬람과의 논쟁에서 매우 지쳐있다. 로마카톨릭을 포함한 유럽 크리스천들과 무슬림들 양쪽에 십자군 원정, 양방 간에 수 많은 살인들로 인해 많은 상처들이 있다.<sup>42</sup> 이런 역사적 종교적 정치사회적 배경을 통해서 유럽 교회와 WCC가 왜 이런 대화의 방향으로 나가게 됐는지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폴 히버트는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모두 스스로 보편적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글로벌 규모로 사람들을 회심시키려고 노력해 왔다’고 지적한다.<sup>43</sup> 이런 양 종교의 선교성 때문에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쉽게 답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2009년 7월에 영국 복음주의 크리스천 지도자들과 무슬림 지도자들이 자신의 종교를 전파하는

---

41. Programme for Christian-Muslim Relations in Africa, 50th Anniversary Celebrations programme, 19–24 November 2009, 13.

42. Hugh Goddard, *A History of Christian-Muslim Relations* (Chicago: New Amsterdam Books, 2000), 104. 1265년의 단테의 ‘신곡’ 중 지옥 편에서 ‘무함마드’가 지옥의 맨 밑에 위치한 것으로 묘사된 배경들은 유럽과 이슬람의 오랜 충돌로 인한 이유 때문이다.

43. 폴 히버트, 『1세기선교와 세계관의 변화』 (서울: 복있는 사람, 2010), 456.

데 있어서 지켜야 할 10가지 윤리적 의무에 합의하였다.<sup>44</sup> 이러한 윤리 강령은 WCC의 방향과는 매우 다르다. 무슬림들에게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아예 포기한 채, 단순히 평화를 위한 대화를 하자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양 종교의 선교성을 그대로 양방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선교하는 윤리를 채택한 점에서 진전이 있었다. 비록 작은 출발이지만, 이렇게 자유를 보장하고 서로 존중함으로 증거하는 일이 확산되면 바람직하겠다.

셋째, 로잔 복음 운동을 통한 균형 잡힌 총체적 사역이 강화되어야 한다. ‘로잔 운동’과 ‘미가 네트워크’로 인해 ‘총체적 선교’가 강조되는 점은 무슬림 선교에 있어서 매우 유익하다. 가난한 자들, AIDS환자들, 환경 문제 등에 더 관심을 갖게 되어 다행이다. 전인적이고, 총체적으로 무슬림들에게 접근하는 일은 무슬림 문화에도 적절한 일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산유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무슬림 나라들은 매우 가난하다. 환경도 열악하다. 질병도 많다. AIDS/HIV도 증가하고 있다. 종교에 상관없이 우리는 총체적으로 이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

넷째, 균형 잡힌 구령의 열정이 타 올라 전도와 양육과 교회 개척이 이루어 져야 한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열정이 빠진 총체적 사역은 ‘사회 복음’으로 치우칠 위험이 늘 잠재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크리스천 증인들은 UN 사역자들과 매우 다르다. 총체적 사역을 빙자하여 전도와 제자 양육이 서서히 약화되는 경향은 존 스타트의 영혼 멸절설(실제적인 지옥을 부인하고 영혼이 멸절한다는 그의 주장)이 한 몫을 한 것이 아닌

44. ([http://www.christianmuslimforum.org/downloads/Ethical\\_Guidelines\\_for\\_Witness.pdf](http://www.christianmuslimforum.org/downloads/Ethical_Guidelines_for_Witness.pdf))

Guidelines for Ethical Witness (윤리적 증거를 위한 10가지 안내)

1. 말뿐만 아니라, 자세, 행동, 삶을 통해 증거
2. 사람은 개종시킬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개종 시킬 수 있다. 어떤 믿음을 선택하는 일은 그들과 하나님간의 선택사항임을 인정한다.
3. 종교 선택의 자유 강조-강압적 전도 반대
4. 개종시키려고 가난한 자들을 돈 등으로 유인하거나 돕지 말 것
5. 개종은 물질의 유혹이 아닌, 마음으로부터 되어지도록 할 것
6. 자신의 종교를 옹호키 위해 다른 종교를 멸시하지 말 것
7. 불편해도 자신의 종교의 믿음을 정직히 확실히 말할 것
8. 각종 활동의 동기를 정직하게 말하고, 그 활동 안에도 ‘전도’가 있음도 알릴
9. 타 종교로의 개종자를 기뻐하고 지원하나, 그를 잃은 믿음 공동체에 민감할 것
10. 다른 종교를 택할 때 우리가 상처받지만, 그들의 결정을 존경하고, 반대로 강압하지 말 것

가 싶다. 18세기에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는 실제 지옥을 믿었고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이 지옥에서 맞이하게 될 운명을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놓인 죄인들”이란 제목으로 생생하게 설교하여, 많은 회심자가 생겨났고 마을 전체의 분위기가 변화되었다. 총체적 선교로 인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통과한 총체적 선교 패러다임이 되어야 한다. 예수께서도 한 사람이 새 (마6:35), 참새 (마10:31), 양 (마12:12), 심지어 온 천하 보다 (마16:26) 더 귀하다고 말씀하지 않았는가! 영혼 구원, 제자 양육, 교회 개척 등은 한국 선교의 매우 큰 강점이다. 무슬림권내 교회 개척 사역에 이러한 균형잡힌 구령의 열정이 한국 선교를 통하여 세계적으로 확산되길 간구한다.

다섯째, 일반 은총 면에서, 이슬람과 함께 인류 평화와 가난 문제, 환경문제 등 전반적인 이슈들을 위해 평화적인 공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슬람이 기독교의 종교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이단이지만,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에는 OIC로 연합된 53개 이슬람 나라의 정치 체제를 한국이 만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과 공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많은 전문가와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므로 이런 영역에서 신속히 많은 기독교 전문가들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 III. 이슬람 선교를 위한 한국교회의 대안

1961년 10월 31일에 이화여대 선교부 파송으로 파키스탄에 전재옥(1960.8-1974.8), 조성자(1960-1967), 김은자(1960-1962)를 파송한 것이 한국 교회의 이슬람 선교의 첫 출발이었다.<sup>45</sup> 반세기인 50년이 지난 오늘날 이슬람 선교에 발전이 있음에 대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한국 교회와 앞서 가신 귀한 선배들의 수고와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앞에서 지난 100년의 이슬람 선교를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으니 이제는 이슬람 선교를 위한 한국 교회의 앞으로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1년 12월 현재 무슬림 나라에서 사역중인 한국 선교사들은 약4,494명이었다.

---

45. 전재옥, 『파키스탄 나의 사랑』 (서울: 예명, 2008), 11.

(전체 한국 선교사 19,373명중 23.2%)<sup>46</sup> 그리고 2010년 12월 한국 내 체류 무슬림들은 <표 2>와 같다.

<표 2> 이슬람 국가 출신 외국인 국내 체류 현황 (단위: 명, %)

| 구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12 |
|------------|--------|--------|--------|--------|--------|---------|
| OIC국민 체류인원 | 78,607 | 81,442 | 81,218 | 89,504 | 86,764 | 97,313  |
| 불법체류인원     | 36,566 | 35,828 | 35,432 | 31,639 | 25,714 | 23,592  |
| 불법 체류율     | 46.5   | 44.0   | 43.6   | 35.3   | 29.6   | 21.5    |

<출처: 출입국-외국인 정책 본부>

## 1. 이슬람 선교에 대한 건강한 신학적 틀

‘좋은 신학이 늘 좋은 선교를 낳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학이 없거나 나쁜 신학은 확실히 나쁜 선교를 낳을 것이다.’<sup>47</sup>라는 짐 테베 (Jim Tebbe)의 말은 한국교회의 이슬람 선교를 위하여 매우 의미있는 말이다. 한국 선교는 필자의 리서치에 의하면 전도, 제자 양육, 교회개혁이 중심이 된 선교이다. 이러한 사역적 실천은 건강한 신학에서 나와야 한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Christopher Wright)의 ‘세계화된 기독교’를 인정하면서 남반구 (비서구 교회)의 신학적 기여를 기대하였다. 다국적 교회와 다방향 선교 시대에는 서구 신학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필자는 이점에서 특별히 비서구 교회에서 무슬림들과 관련하여 서구적 신학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믿는다. 서구 신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과 서구 기독교가 부딪쳐 오면서 발전된 그들이 신학의 부족한 부분을 비서구가 보완해야 한다는 말이다. 십자군 전쟁을 계기로 12세기경 아랍세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도미니칸 수도사인 토마스 아퀴나스가<sup>48</sup> 그 당시 동료 도미니칸들을 위해 이슬람에 대

46. Steve Sang-Cheol Moon, “Missions from Korea 2012: Slowdown and Maturation” *IBMR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Vol.36, No.2, (April 2012) 85.

47. 데이빗 그린리 편저,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서울: 예영, 2010), 107.

48. 김영재, 『기독교 교리사』 (수원: 합신대학원 출판부, 2009), 39.

해서 ‘이방인들에 대한 비판적 정리’(Summary against the Gentiles)를 쓸 때 동료 크리스천들을 위해 보충적으로 그 글을 쓴 것처럼<sup>49</sup> 오늘날 비서구가 성경적 관점에서 동료 크리스천들을 위해 이슬람 선교를 위한 신학을 보충해야 한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하갈(창16:8, 11)과 이스마엘 (창 17:20-축복 25, 26-할례)을 축복하신 점, 갈라디아서 4:21-31에 사라-이삭과 하갈-이스마엘에 대해 ‘비유’라고 분명히 밝히면서 바울 사도가 그 뜻을 분명히 재해석하는 점(즉 이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의 차이를 뜻함), 이집트와 시리아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를 경배하며,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는 약속(이사야 19:21-25), 팔레스타인들이 유다의 한 종족 같이 되리라는 약속(슥9:7)<sup>50</sup> 등에 대해 무슬림들을 의도적으로 의식하면서 ‘보완적인 신학’이 형성되어야 한다. 물론 오늘의 무슬림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인가에 대해 밝히는 일은 별도의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러한 보완적인 신학의 큰 틀 안에서 이슬람 선교가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한국 이슬람 선교의 신학적 틀은 복음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기억하여<sup>51</sup> 무슬림들과의 관계에서는 보편적으로, 그러나 교회 자체 내에서는 특수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즉,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무슬림들을 바라본다는 것은 산상 수훈을 통해 무슬림들을 바라보고 관계해야 함을 의미 한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 7:12)는 그리스도의 명령이 무슬림들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뜻하는가를 마땅히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다. 예수께서 구약을 해석하시면서 ‘너희가 ...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5:21, 22, 27, 28, 31-34, 38, 39, 43, 44)라고 구약을 그 당시에 재해석해 주신 것처럼, 신약이 완성되고 꾸란이 완성된 이후, 그리고 다원주의가 팽배해 지고 있는 현대에, 무슬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건강한 신학이 시급히 재정립되어야 한다.

49. Hugh Goddard (2000), 102-103, 116, 157,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적인 논리와 방법론에 있어서는 기독교 신학을 풍성하게 하였으나, 종교개혁 입장에서 그러한 시도가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에 사람이 접근하는데 오히려 그만큼 방해가 되는 것이다.’ 김영재. (2009), 31.) 김영재의 언급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전반적인 면을 두고 한 평가이고, 무슬림 관계를 특별히 한정하여 한 말은 아니라 본다.

50. Christopher J.H. Wright, *The Mission of God* (Downers Grove: IVP, 2006), 498.

51. Ibid., 38.

## 2. 무슬림권내에서 ‘하나님의 공동체’(교회)의 의미

필자의 설문조사에서 한국 선교의 가장 강한 강점의 순서로 희생적인 헌신, 기도생활, 전도, 제자 양육, 교회개척순으로 나타났다.<sup>52</sup> 그러나 무슬림권에서의 교회 개척에 있어서는 수많은 도전들이 있다. 그 중에 재정비 되어야 할 과제가 교회론이다. ‘무슬림권에서 교회가 무엇이나’라는 것이다. 필박이 가세되는 무슬림 현황에서 한국적 제도적 교회를 발전시키기에는 많은 문제가 생긴다. 사무엘 즈웬머도 1912년에 ‘크리스천이 크리스천이라고 구원 받는것이 아니고, 무슬림도 물론 그가 무슬림이라고 구원받을 수 없다. 그들이 (현존하는) 기독교와 공식적 가시적 관계 밖에 있어도 그리스도와 살아 있는 불가시적인 관계가 있는 모든 이들은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했다.<sup>53</sup>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 18:20)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지상 교회의 최소 단위를 두 세 명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제도적인 교회에 익숙한 한국과 서구 교회들이 무슬림권에서 사도행전적인 가정 교회를 격려하면서, 1세기적인 교회의 모습에 더 충실할 것을 제안해 본다.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난 루디아 가정 모임, 빌립보 간수 가정모임을 무슬림권내 최소 교회 형태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당시 잠정적으로 빌립보에서 머물러 누가가 가정 교회들을 돌보았고, 바울은 순회하며 섬겼듯이, 박해와 도전이 심한 이슬람권에서 가정 교회 (모임)들이 많이 생겨나면 1세기적 가정 교회처럼, 성숙한 현지 지도자들을 장로와 목사로 세워서 순회하며 여러 흩어진 가정 교회들을 돌보게 함도 매우 좋은 대안으로 보인다. 폴 히버트가 그의 저서 『21세기 선교와 세계관의 변화』에서 철저하게 파헤친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가진 교회는 1세기 모습에서 매우 멀리 떨어진 모습인데 현재 한국의 제도적 교회가 진정성 있는 교회 모습인양 무슬림권에 복제하려는 시도는 끝나야

52. (Matthew) Jeong, Keung-Chul, "Toward Best Practice concerning Partnership between Koreans and other nationalities: A model for Interserve", *Dissertation of D.Min.*(Pasaden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9), 86-90.

53. Samuel M. Zwemer, *The Muslim Christ* (Edinburgh and London: Oliphant, Anderson and Ferrier, 1912), 178-179: "The Christian is not saved because he is a Christian. The Moslem, of course, cannot be saved because he is a Moslem. All who may be saved outside of formal and visible connection with Christianity will be saved because of a real and invisible connection with Christ."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무슬림들안에 복제하려는 진정성 있는 예수 복제는 환영하지만, 다른 나라의 제도적 교회를 무슬림권에 복제하려는 시도는 첫 단추를 잘못 꿴다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1세기 교회의 모습을 성경에서 배우고, 한국 교회가 탈 서구교회, 탈 한국 교회 작업을 거쳐서 교회의 성경적 모습을 찾아 무슬림권에서 교회를 형성하는 시도를 한다면 건강한 방향으로가는 것으로 본다. 성경의 본문이 말하는 모습으로 들어가서 그 본문의 내용과 방향을 출발로 상황화를 시도하면 무슬림 문화권에 더 가깝고도 적절한 교회가 탄생될 것으로 믿는다.

### 3. 제자양육을 통한 현지 교회 형성

무슬림 회심자들을 제자 양육하는 방식과 공동체인 교회로 모이게 하는 방식도 성경적이면서 현지 무슬림들에게 적합한 방식은 없을까? 이에 ‘교회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묻는 작업부터 해야 함을 뜻한다. 무슬림 회심자들에게 성경을 직접 읽게 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문화와 말로 표현 하게 하며 우리는 그들로부터 배우기도 하고, 또 그들과 쌍방으로 상호 의사소통함으로써 함께 배우는 방식 등 현지 문화에 적합한 여러 가지 방식들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기독교 제국주의를 경험한 무슬림 나라들인 만큼, 일방적 주입식 보다는 겸손한 새로운 시도는 바람직하다. 그래서 최소한 오만과 식민주의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가지지 못한 자들’(지옥의 형벌을 받은 집단)과 대조되는 ‘가진 자들’(지복을 소유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똑 같이 자비에 참여하는 자요 똑 같이 자비를 받은 자들이다’(보쉬 1991, 484)<sup>54</sup> ‘많은 사람들이 나를 제자양육하고 훈련 해주길 원했지만 어느 누구도 나의 친구가 되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현지 무슬림 회심자의 말을 기억하면서 제자화는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어 가는<sup>55</sup>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54. 폴 허버트 (2010), 551.

55. Ibid., 127.

무슬림을 위한 전도지와 크리스천 책들이 재개발되어야 한다. 무슬림들은 구약에 있는 문화와 가치관들을 많이 공유한다. 명예와 수치, 대접, 가족과 공동체와의 결속 등이 그런 것들이다.<sup>56</sup> 의와 죄(Right or Wrong)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4영리’를 무슬림 문화에 더 친숙한 ‘명예와 부끄러움’을 기초로 달리 만들어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은 시도로 본다. 무슬림 사역 자체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무슬림들과 관련한 우리의 사역이 ‘기독교’와 ‘이슬람’사이의 전투관계로 보지 말고, 무슬림이나 크리스천들이나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sup>57</sup>

화융 비숍의 연구에 따르면<sup>58</sup>, 이슬람 세력으로 인해 중동과 북아프리카 교회는 거의 사라졌지만, 예외적으로 성장한 교회가 있었다. 바로 7-14세기에 페르시아의 네스토리안 교회였다. 이슬람의 적대적인 상황에서도 선교사적인 열정으로 10세기에 절정을 이루었던 교회였다. 비록 삼위일체론에서 교리적으로 실패한 교회였으나 (예수님의 인성만을 주장한 단성론자들이었으므로) 이슬람 속에서도 왕성하게 성장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이들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쇠퇴한 것을 역사적 거울로 삼아 한국 교회도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1. 7-9세기에 교회가 성장하여 부와 힘을 축적되면서 교회 자체 내의 물질주의와 자리다툼과 정치력을 위해 싸우므로 힘이 약화된 점.<sup>59</sup>
2. 현지 문화에 지나치게 타협하여 토속화에는 성공 한 듯하나<sup>60</sup>, 기독교의 독특성을 찾아보기 힘들게 희석된 점.<sup>61</sup>

---

56. Ibid., 45.

57. J. Dudley Woodberry (2008), 106.

58. Bishop Dr. Hwa Yung, “Nestorian Christian witness under Islam: A Comparative Study of The Churches in Persia, Egypt and North Africa in The Early Centuries of The Islamic ERA” ( 2011.9.27 할렐루야 교회에서 *The Gospel and Our Neighbors* 에서 발제)

59. A.R. Vine, *The Nestorian Churches. A Concise History of Nestorian Christianity in Asia from the Persian Schism to the Modern Assyrians* (London: Independent Press, 1937), op. cit., 101.

60. David D. Bundy, “Missiological Reflections on Nestorian Christianity in China During the Tang Dynasty” in *Religion in the Pacific Era*, eds. F.K.Flynn and T.Hendricks (New York: Pragon House, 1985), 23.

61. Stewart, op. cit., 248 G.W. Houston, “An Overview of Nestorians in Inner Asia”, *Central Asiatic Journal*, Vol. 34 (1980): 62, 64f.

3. 매우 많은 새 회심 자들을 충분히 가르치지 못하고 제자 양육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실. 예를 들면 1009년 몽고에서 네스토리안 상인들에 의해 복음이 북 몽고의 케라트 투르크족에 전파되어 약 200,000명이 회심했을 때 네스토리안 교회가 단 한 명의 사제와 한 명의 집사를 보내어 세례를 베풀고 제자 양육하게 한 점.<sup>62</sup>
4. 교회내의 영적 힘이 약화되어 다른 이들에게 매력과 흥미를 잃어버린 점. 쿠빌라이 칸(Kublai Khan)이 마르코 폴로(Marco Polo)에게 ‘기독교가 영적 힘이 없어서 크리스천이 될 마음이 없다’고 말한 점.<sup>63</sup>
5. 복음이 현지에서 현지인들에게 낯설게 나타난 점. 현지어로 성경을 번역하지도 않았고, 예배 의식과 기본 교리 등이 시리아어(Syriac)로 남아 있고 중국말로 번역이 안되어 현지인들에게 낯설었던 점, 그리고 중국에서 146년간 네스토리안 선교가 있었으나 한 명의 중국 지도자가 없었던 점 등.<sup>64</sup>

18-20세기에 무슬림권에서 교회 개척을 성공적으로 했던 대표적인 선교사들의 예를 들면, 인도의 헨리 마틴(1411-1812), 토마스 발피 프렌취-최초의 라호르 비숍(1825-1891), 루이스 베반 존스-인도의 헨리 마틴 학교의 초대 교장(1880-1960), 그리고, 이집트의 탐플 가드너(1873-1928), 특히 알제리아에서 사역한 프랑스 선교 샤를르 드 포고 등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공통된 교훈들을 그 선교사들의 삶과 사역으로부터 배우게 된다. 1.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의 중요성, 2. 총체적 방식으로 현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일, 3. 지역 언어를 잘 하도록 배우며 꾸란 아랍어를 잘 배울 필요성,<sup>65</sup> 4.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글로벌 협력(파트너십)을 잘 하는 일<sup>66</sup> 등 이러한 교회개척과 제자양육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회심자들과 사역자들이 함께 양방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전통적으로 사역자들이 그들

---

62. Laurence E. Browne, *The Eclipse of Christianity in Asia. From the Time of Muhammad till the Fourteenth Century* (London: Cambridge Univ. Press, 1933), op. cit., 101.

63. Houston, op. cit., 65.

64. Chiu, op. cit., 278.

65. Ali Merad, *Christian Hermit in an Islamic World: A Muslim's View of Charles de Foucauld* (New Jersey, USA: Paulist Press, 1999), 6.

66. Matthew Keung-Chul, Jeong (2009), 109.

에게 일방적으로 세계관 변화를 촉구하는 일방적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변화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최근에 샘 실로르프 (Sam Schlorff)에 의해 이슬람 문화속의 교회개혁에 대한 권장할 만한 모델이 제안되었다. 그것은 고린도 후서 11:2-3에 의거하여 약혼 모델 (The Betrothal Model)이라 불린다. 교회 개혁자의 역할을 무슬림들을 그리스도에 계 약혼 (중매)시키는 역할로 보는 데서 유래한 것이다. 무슬림들을 ‘빼내기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장벽 없는 교회’(CWW: Church Without Walls)와 ‘더 나은 이해를 위한 모임’(MBU: Meetings for Better Understanding)을 통하여 이슬람과 기독교를 분명히 구분하고 비교하여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기회를 주는 방법으로 무슬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기독교적 의미들’을 꾸란 구절이나 이슬람 문화 형식들 안에서 읽으려 하지 않으면서 상황화에 대한 유일하고 합법적인 신학적 출발점을 성경에서 찾는다. 이슬람과 기독교 메시지를 혼합하지 않고 정직하게 비교하여 그 모임의 참여자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는 에큐메니컬 대화도 아니고, 메시지를 타협하거나 두 신앙을 혼합하려는 것을 목표로도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공적인 종교간 비난도 아니다. 주의 깊게 선택된 주제를 중심으로 무슬림 - 크리스천들이 만난다. 이 결과로 크리스천 보다는 무슬림들이 숫자적으로 더 압도적으로 참가하고 있다.<sup>67</sup> 이런 시도는 그가 아랍권에서 실천했고 또 미국에서 실천하여 실제적인 열매를 맺은 결과로서 제시된 좋은 모델로 보인다.

#### 4.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한 상황화

최근 들어 무슬림 선교에 있어서 선교 단체들과 선교사들 내에서 무슬림 선교 상황화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무슬림권 교회 개혁시 ‘상황화’이슈와 ‘인사이더 운동’ 그리고 ‘C1-C6’등은 현재 논의 중이지만, 무슬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

---

67. Sam Schlorff (2006), 163-171.; 샘 실로르프, 『무슬림 사역의 선교학적 모델』 (인천: 도서출판 바울, 2012), 302-314.

는 다각적인 노력과 시도는 조심스럽게 격려 되어야 한다. 상황화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이들이 함부로 매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사역하는 그들을 폄하하고 비방하는 일은 앞으로의 건강한 무슬림 교회 개척에 있어서 부메랑 효과를 내어 우리들 모두가 더 낙심되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의와 존중심을 가지고 같은 동료들과 대화하고 충고하고 서로 배우는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 특별히 무슬림 나라에 현존하는 지역 교회/고대 교회들과의 관계에서 매우 민감하고 지혜로운 교회론적 그리고 선교론적 통찰력을 가지고 상황화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sup>68</sup>

나는 여기서 타문화권 사역자들이 직면한 상황화 이슈 자체를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다루어 지지 않은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다루려 한다. 즉, 상황화 작업에 있어서 하나님 편에서 성령의 역할과 우리 편에서 간절한 기도의 필요성이다. 상황화 과정에서 (선교사이건 현지인이건) 사람들이 상황화 작업을 하지만,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와 역사의 정황에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평가하고 적용하고 변화하는 일은 결국 성령께서 빛을 각 사람에서 비추어서 깨닫게 하시고, 적용할 힘을 주실 때 적용가능하고, 적절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믿는다. 현대 선교의 상황화 신학을 정리한 스티븐 베반스의 상황화에 관련된 책들에서, 상황화를 결정적으로 결정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점을 저자 자신도 빠뜨린 점은 큰 과실이라고 본다. 상황화의 작업에서 ‘성령의 역할’이 가장 결정적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스티븐 베반스 교수는 *Constants in Context*에서 지난 2000년간의 선교에서 불 변수 6가지를 1. 기독교론, 2. 교회론, 3. 종말론, 4. 구원론, 5. 인간론, 6. 문화라 보았다. 그 불 변수 중에서 성령론은 빠져 있다. 신약 시대의 선교의 주인이 ‘성령’이라고 우리 모두 믿지만, 선교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6가지 요인 중에 성령님의자리가 없다는 점은 인간 중심의 선교와 상황화를 뜻하는 것은 아닌지!, 동시에 한국 교회의 열정적 기도는 세계적으로 알려 지고 있다. 한국 교회들과 선교사들을 통하여 무슬림 여성 회심자들 안에서도 열매를 맺고 있다.<sup>69</sup>

세속화가 진행되는 최근에 들어와서 종교가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 다시 등장했다. 이슬람교에 바탕을 둔 위대한 문명들, 중국, 그리고 갈수록 미국에서도 이런 현상이

68. John Stringer. *Contextualization: Transformational Dialogue* presented at International Council of Interserve on 23 Nov 2011 in London.

69. J. Dudley Woodberry (2008), 70,76.

일어나고 있다.<sup>70</sup> 세속화되어 가는 세계에서 이슬람은 더 종교적이 되고 있는 마당에 기독교 선교가 더 합리적이고 현대적이고 경영적인 방법론을 택하기 보다는, 성령님의 능력과 기도를 통한 영성과 종교성을 건강하게 잘 보존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롬 9:1-3의 바울의 간절한 기도처럼) 역사하시길 기뻐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제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슬림권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는 것이다. 경건의 모습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회복되어야 한다(딤후 3:1-5).

## 5. 삼자 파트너십 형성과제

오늘날 1. 비서구 교회(Global South)의 급성장과 세계선교 참여-지역 교회 강조, 2. 총체적 선교의 절대적 필요성에 의한 평신도 전문인 선교 시대 도래, 3. 해외/국내 디아스포라(Diaspora) 공동체를 통한 새로운 선교 형태의 등장, 4. 국가간, 선교 단체간 파트너십 선교가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본다. 최근 들어 대부분의 선교 대회에 참여해 보면 비서구 지도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을 본다. 이제는 세계적으로 ‘현지 교회 시대’가 도래한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한국 선교가 무슬림권에 있는 현지 교회들과 그리고 무슬림 회심자들(MBBs: Muslim Background Believers)과 협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들과 협력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사실, 현지 교회들과 협력하는 일을 서구 선교사들이 이미 노력했었다. 중동,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자국 무슬림 전도를 위해 현지 교회와 크리스천들을 훈련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해 현지인들이 침묵하거나 또는 방어적인 결과를 보였다.<sup>71</sup> 그러나 서구가 아닌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더 근접 문화권인 한국교회가 그들을 접촉하여 협력하고자 할 때, 한국교회는 지난 약 30년의 한국 선교의 장단점을 심각히 통찰하면서 특별히 최근의 ‘이슬람 파트너십’에서 통찰들을 통해 얻은 지혜와 진정한 겸손으로 협력해야 한다. 즉, 현지인들과 국제단체들과

70. Paul G. Hiebert (2008), 257,

71. J. Dudley Woodberry (2008), 56.

한국 교회/선교가 삼자 협력(Triangular Partnership)을 해야 한다. 무슬림권 선교는 어느 한 사람, 한 단체, 한 나라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아래 추진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삼자 글로벌 협력이 이루어 질 때, 현지인들과 함께 선교사들의 문제가 되어 있는 상황화 문제도 서로 의논할 수 있고, 현지 교회 개척에 대한 최선의 대안도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과 협력을 하기 보다는 적은 수로 성실히 시작하여 실제적인 열매를 맺도록 함으로써 사역을 위한 목표 중심의 협력 보다는 무슬림권 현지인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친교를 맺고, 좋은 신뢰를 쌓아 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여 진다.

## 6. 한국 정부의 역할강화

앞으로 무슬림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러한 위기 관리문제는 정부와 대사관과 여러 전문 기관들이 협력해서 해야 한다. 최근에 2011년 1월 24일에 ‘한국 위기관리 재단’이 외교 통상부에 등록되어 정부와 함께 정식으로 출발하게 되었음은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정부와 협력할 때 무슬림권 선교에서 일어나는 선교사 위기관리를 위해 더 좋은 대안들이 나올 수 있다. 또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정부와의 협력해야 한다. 국내의 무슬림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다문화 가정들이 늘어나면 정부의 역할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내 무슬림 노동자 처우 문제, 그들의 음식 문제, 국제 결혼시 자녀들의 학교 이슈와 그들의 학교 음식, 모스크 이슈등은 정부가 당면한 일들이다.

로마서 13장의 정부의 역할대로, 영국 정부가 국회의원들과 기독교 지도자들, 무슬림 지도자들, 유대인 지도자들을 모아 ‘이슬람포비아’를 다루었듯이 한국도 이런 대비를 해야 한다. 이슬람의 총제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영역은 권력을 지닌 정부의 영역이므로, 마땅히 이 영역을 정부가 미래 지향적으로 제대로 감당해 주지 않으면 한국은 장차 정치와 사회, 경제면에서 매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한다. 교회는 이슬람 종교와 이슬람 문화와 역사등의 영역에서 한국 정부에 Know-How와 더불어 중요한 조언을 하므로 한국내의 장래 이슬람과의 관계 발전을 위하여 정직하고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수크크’문제로 시끄러운 일이 어제 같지만 이러한 도전은 빙산

의 일각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런 영역에 중요한 인재를 키우는 일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최소한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정부의 케이스를 공부하여 무슬림들과 한국 국민과 정부에 최선이 되는 정책적 그림을 만들도록 준비해야 한다. 바라기는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이슬람 국가와의 정치, 종교, 문화, 경제의 영역에서 세계에서 가장 모본이 모델을 한국 정부가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 7. 차세대 기독교인을 위한 권고

필자는 소속 선교부 한국 본부의 갑작스런 필요에 의해 2007년에 한국에 귀국하여 본부 사역을 하게 되었다. 지난 5년간 국내 대표 사역을 하면서 한국의 모국 교회의 현실을 점점 더 알게 되었다. 필자는 요한 계시록 2:5말씀이 두렵게 다가왔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 자신부터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살펴보고 회개하였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현실, 특히 주일 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학생들을 생각할 때 매우 마음이 아프다. 이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선교의 출발은 지역교회에서부터다. 무슬림 선교를 이야기하기 전에 내 가정과 내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가정과 교회가 중요한 모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우리 교회에서 옮겨 가신다면 우리는 유럽 교회처럼 껍질만 남은 교회로 전락하게 될 것은 뻔하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된다면 그 다음 우리 손자의 세대는 매우 무서운 세대가 될 것이다, 급격하게 불신 사회가 될 것이다. 많이 지어진 큰 교회 건물에 누가 올 것인가, 경쟁을 다투었던 많은 신학교는 어떻게 될까? 우선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살아야 한다. 앞으로 20-30년이 지난 한국을 상상해 보자. 노인들이 많아지고, 청년들은 별로 없는 교회를 상상해 보라. 이런 교회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심각히 회개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대대적인 회개와 기도를 통하여 교회의 정체성을 되찾자. 그리고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

성령님의 예언대로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는 역사적으로 사라져 버렸다(계 2:1-7).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셔도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어 질 것이다. 중국 교회를 통하여, 아프리카 교회를, 인도 교회, 방

글라데시 교회를 통하여 이슬람권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실 것이다. 그러나 훗대가 옮겨진 그 나라에 무엇이 찾아 올 것인지 심히 두렵다. 우리 모두 두려움으로 깊은 회개와 기도와 구체적인 대안으로 먼저는 한국 교회를 위해 그리고 이슬람권 선교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하자. 위기는 항상 기회를 동반하였다. 이럴 때 낙심하지 말고, 희망과 믿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지도자와 차세대들이 만나서 지혜를 모아, 차세대 크리스천들을 준비하여 이미 필자가 제안한 내용과 방향으로 이슬람권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하자. 지금은 한국 교회가 미래 이슬람 선교를 위해 급전을 이룰 중요한 시점 (Critical Moment)이다.

#### IV. 결론

우리는 매우 염려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의 모든 주변에서 불관용과 종교적 긴장이 일어나고 있다. 극단적인 주장이 힘을 얻고, 온건한 목소리들은 공격받고 있다. 그리고 이슬람과 기독교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큰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인간의 공동 가치와 공유된 영감을 강조하면서 문화 간, 종교 간의 지속적이면서도 건설적인 대화의 다리를 다시 놓는 작업이 매우 절실하다.<sup>72</sup> 사무엘 즈웬머의 무슬림 선교 이후 약 100년이 지난 지금 한국 교회는 이슬람을 향한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명을 받았다. 지난 100년의 실수들은 과감히 버리고 좋은 교훈들을 배우는 동시에 한국이 감당해야 할 짐을 지고서 한국은 먼 지평을 바라보며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며) 무슬림들과 새로운 관계형성을 통하여 이슬람을 향한 새로운 기독교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의 이슬람 선교를 위한 대안으로, 한국 교회는 승리주의 등을 기초로 했던 과거 선교방식으로부터 탈 서구화해야 하며<sup>73</sup>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 주시

72. Mark D. Siljander, "A Deadly Misunderstanding, A Congressman's quest to bridge the Muslim-Christian Divide", Harper One, New York, 2008, 7-8. in Foreword ('A Deadly Misunderstanding'의 반기문 UN사무총장의 서문에서)

73. 앤드류 월즈 (2006), 89-107.; 224-243.

고, 사도행전에서 사도들께서 보여 주신 모본과 선교 원칙을 중심으로 하는 이슬람 선교 신학적 틀과 교회론이 재형성되어야 한다. 서구 신학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이러한 보완적인 신학적 틀을 중심으로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한 구원의 역사와 건강한 제자 양육, 그리고 현지에 적합한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 또한 글로벌 세계에서 글로벌 교회와 더불어 삼자 파트너십(한국과 현지와 국제 협력)이 긴밀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슬람의 통합적 성격을 감안하여 한국 정부는 자신의 중요한 역할을 심각히 자각하여 이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좋은 국가적 관계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깊은 영성으로 한국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이슬람을 향한 균형잡힌 선교의 본과 관점으로 차세대 크리스천을 시급히 준비하고 전수해야 한다.

이슬람과 기독교는 둘 다 유일신을 믿는다. 둘 다 선교적이다. 둘 다 종말을 향해 달음질하고 있다. 두 종교의 사람들은 책의 사람들이다. 기도와 예배의 사람들이다. ‘종교적인 사람들’이다. 앞으로 크리스천인구가 더 많아질까? 무슬림 인구가 더 많아질까? 염려 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사실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진실한 관계를 맺은 자만이 중국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무엘 즈웬머가 1912년에 한 말을 다시 기억하자.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무슬림도 물론 그가 무슬림이라고 구원받을 수 없다. 그들이 (현존하는) 기독교와 공식적 가시적 관계 밖에 있어도 그리스도와 살아 있는 불가시적인 관계가 있는 모든 이들은 구원받을 것이다.’<sup>74</sup>

그리고 세계교회와 더불어 무슬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제사장들과 거룩한 나라로 사용하시길 간절히 간구 드린다. 그리하여 무슬림들의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가운데서’(계 5:7)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나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바라본다.

**주제어: 이슬람 선교, 지난 100년, 역사적 평가, 한국적 대안, 새로운 사명과 방향**

---

74. "The Christian is not saved because he is a Christian. The Moslem, of course, cannot be saved because he is a Moslem. All who may be saved outside of formal and visible connection with Christianity will be saved because of a real and invisible connection with Christ." Samuel M. Zwemer (1912), 178-179.

## ● REFERENCES CITED

- 김영재, 『기독교 교리사』. 수원: 합신대학원 출판부, 2009.
- 랄프 윈터, 『퍼스펙티브』. 서울: 예수 전도단, 2010.
- 이수환, 『상황화 선교 신학』. 파주: 한국 학술 정보(주), 2011.
- 앤드류 윌즈, 『기독교의 미래』. 파주: 청림 출판, 2006.
- 전재옥, 『파키스탄 나의 사랑』. 서울: 예명, 2008.
- 존 맥아더 『복음 전도』.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2.
- 폴 히버트, 『21세기 선교와 세계관의 변화』. 서울: 복있는 사람, 2010.
- Ali Merad, *Christian Hermit in an Islamic World: A Muslim's View of Charles de Foucauld*. New Jersey, USA: Paulist Press, 1999.
- Stanley, Brian *The World Missionary Conference, Edinburgh 1910*.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2009.
- Vine, A.R. *The Nestorian Churches. A Concise History of Nestorian Christianity in Asia from the Persian Schism to the Modern Assyrians*. London: Independent Press, 1937.
- Chesworth, John Anthony. *The use of Scripture in Swahili Tracks by Muslims and Christians in East Africa*. The University of Birmingham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Department of Theology and Religion School of Historical Studies, The University of Birmingham October 2007.
- Barrett, David B. Todd M. Johnson, *World Christian Trends, AD 30-AD 2200*.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2001.
- Brown, Daniel W. *A New Introduction to Islam*. Second Edition, West Sussex: Wiley-Blackwell, 2009.
- Flynn F.K. and T.Hendricks eds. *Dynasty' in Religion in the Pacific Era*. New York: Pragon House, 1985.
- Goddard, Hugh. *A History of Christian-Muslim Relations*.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
- Siljander, Mark D. *A Deadly Misunderstanding, A Congressman's quest to bridge the Muslim-Christian Divide*. Harper One, New York, 2008, 7-8 in Foreword.
- Browne, Laurence E. *The Eclipse of Christianity in Asia. From the Time of Muhammad till the Fourteenth Century*. London: Cambridge Univ. Press, 1933.
- Vander Werf, Lyle L. *Christian Mission to Muslims, :Anglican and Reformed Approaches in India and the Near East. 1800-1938*,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1977.
- Hiebert, Paul G. *Transforming Worldview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8.

- Schlorff, Sam. *Missiologial Models in Ministry to Muslims*. Upper Darby: Middle East Resources, 2006.
- Zwemer, Samuel M. *The Muslim Christ*. Edinburgh and London: Oliphant, Anderson and Ferrier, 1912.
- Sam Solomon and Al-Maqdisi, *The Truth about 'A Common Word'* 2008.
- Moon, Steve Sang-Cheol "Missions from Korea 2012: Slowdown and Maturation." in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Vol.36, No.2, April 2012.
- Don M. McCurry, *The Gospel and Islam: A 1978 Compendium*. California: MARC, 1979.
- Miroslav Volf, Ghazi bin Muhammad, and Melissa Yarrington eds, *A Common Word, Muslims and Christians on Loving God and Neighbor*. Grand Rapids/Cambridge: William B. Eerdmans, 2010.
- Conway, Gordon. *Islamophobia; A challenge for Us All, Report of the Runnymede Trust Commission on British Muslims and Islamophobia*. University of Sussex, 1997.
- Conference of European Churches-CEC, Council of European Bishops Conferences, Committee for Relations with Muslims in Europe. *Final Report*. Document 4.2 pp. 1-40.
- Bishop Dr. Hwa Yung, *Nestorian Christian witness under Islam : A Comparative Study of the Churches in Persia, Egypt and North Africa in the early centuries of the Islamic Era*. 2011.9.27 할렐루야 교회 'The Gospel and Our Neighbors'의 발제안.
- John Stringer, *Contextualization: Transformational Dialogue*. presented at International Council of Interserve on 23 Nov 2011 in London.
- Wright, Christopher J.H. *The Mission of God*. Downers Grove: IVP, 2006.
- Woodberry, Dudley J. *From Seed To Fruit*.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2008.
- <http://www.oslocoalition.org/mhr.php> and
- [http://www.oslocoalition.org/mhr\\_background\\_eng.php](http://www.oslocoalition.org/mhr_background_eng.php) (accessed 29 October 2012).
- <http://www.acommonword.com/index.php?lang=en&page=option1> (accessed 20 Dec, 2009).



